

## 청소년의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이 분노통제에 미치는 영향<sup>1)</sup>

이지연<sup>2)</sup>    성옥련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표상이란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인지체계이다.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 표상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자극의 해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계적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이 분노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중, 고, 대학생이었으며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 척도, 비행척도 및 분노통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차이검증, 일원변량분석, 다변량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대인관계에 대한 표상을 확인하고 그 특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성, 연령, 비행점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대인관계에 대한 표상이 분노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 맥락(즉 분노유발자)에 따른 차이와 분노유발자에 따른 표현행동의 차이에 대한 표상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은 연령, 성, 비행점수 각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발달적 변화는 곡선적이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간에는 증가하였고, 대학생이 되면서 감소하였다. 또한 남학생과 비행점수상위집단의 표상점수가 여학생과 비행점수하위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은 분노유발자에 따른 분노통제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개인의 정서통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분노통제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행동은 과격하고 폭력적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부모, 친구나 선후배를 향한 폭력과 같은 기존의 대인간 질서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문제 행동들의 심각성에 비추어

불 때, 청소년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런 폭력적 행동의 기저에는 '분노'라는 부정적 정서가 깔려있다. 분노에 대한 기존 연구들(김경희, 1996, 1997; Averill, 1983; Dupont, 1994)에 의하면, 분노는 대인관계적 정서로서의 특성을 보인다.

1)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일부임  
2) jyrhie@hanmail.net

Averill(1983)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대상 중 72%가 사람이고 이중에서 53%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Dupont(1994)도 14-25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분노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임을 보여주었다. 55%의 남자와 70%의 여자가 분노의 원인으로 부모, 형제, 친구를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빈번하게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은 '대인관계 갈등'이었다(김경희, 1996, 1997). 이상의 결과는 분노의 대인관계적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분노를 유발하는 대인관계의 특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변하게 된다. 분노를 대인관계 맥락에만 한정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장 빈번하게 분노를 유발하는 대상은 '친구'(고등학생: 36.0%, 대학생: 22.4%)였으며, '부모'(고등학생:14.5%, 대학생:9.2%)와 '선후배'(고등학생: 6.0%, 대학생:22.4%)에서는 연령차를 보였다(이지연과 김정미, 1998). 이것은 생활영역이 변하고 대인관계의 특성이 변하면서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도 달라짐을 반영한다.

분노의 표현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형태로 표현되며,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Averill(1983)은 분노와 공격성이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신체적 공격을 하기보다는, 공격적 충동을 억제하고 언어적 혹은 상징적 공격의 형태를 보이거나, 오히려 차분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중간적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회적 규칙에 대한 학습, 미래의 결과에 대한 예측, 그리고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분노표현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분노는 빈번하고 강렬하게 표출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노표현의 빈도와 강도는 감소한다. 이런 발달경향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행동적 대처에서 인지적 대처로 변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Frydenberg, 1997; Hoffner, 1993).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생들은 공격적 행동(34%)이나 언어적 표현(39.3%)과 같은 외현적 표출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였다. 그밖에 표현하지 않

거나(11.6%) 혹은 나름대로 해결(15.1%)하였다(김경희, 1997). 이에 반해 대학생들은 쳐다보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다소 강도가 낮은 행동이 주류를 이루었다(이지연과 김정미, 1998). 또한 분노에 대한 대처 방식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고등학생: 24%, 대학생: 23.7%)보다는 아무런 노력 없이 물러서 있거나(고등학생: 51%, 대학생: 36%) 혹은 도피하거나 무시한다(고등학생: 6.5%, 대학생: 24.3%)등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분노의 외현적 표현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노 표현의 변화는 분노를 유발하는 대상의 변화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분노의 대상이 또래집단인지 혹은 부모인지에 따라 분노의 표현강도와 표현방식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또래보다 성인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나이든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성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Frydenberg, 1997; Zeman & Garber, 1996). 또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에 따라 분노의 표현이 달라지기도 한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외집단보다는 내집단에 대해 보다 빈번하고 강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내집단보다 외집단에게 보다 강하고 빈번하게 분노를 표현한다(한규석, 1991; Matsumoto, 1995).

분노표현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표출규칙의 습득이다. 표출규칙(display rule)이란 사회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어떤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표출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이다(Saarni, 1993; 1997). 다시 말하면, 사회적 관습에 기초하여 얼굴표정을 감추거나, 과장하거나, 혹은 다른 감정으로 대체한다(Gnepp & Hess, 1986; Saarni, 1979, 1984). 표출규칙은 크게 자기보호 목적과 타인보호 목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기와 관계에 대한 중요성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가 표출규칙에 반영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역할의 구분과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역할과

관계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표출규칙이 있을 것이다. Matsumoto(1996)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인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슬픔과 공포를 보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분노를 표현하거나 혹은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미래관계의 중요성, 지위에 따른 구분, 자신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려는 문화적 특성에 근거한 표출규칙이다(Matsumoto, 1996).

이와 같은 표출규칙을 통해 정서의 통제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문화적 신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이 정서통제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타인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는 보다 복잡한 과정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분노통제와 같은 정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적 특성에 관련된 문화적 신념 혹은 이론에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인관계의 특성에는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가치가 반영된다. 집단원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문화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서로 다른 특성의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Triandis(1994)가 제안한 대인관계의 수평적 체계와 수직적 체계는 이런 문화적 차이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수평적 체계는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개인주의 문화의 대인관계의 특징으로 개개인의 생각과 감정이 동등한 위치에서 토의와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 이에 반해 집단의 조화가 중요시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에서 형성된 사회적 지위에 의해 갈등이 조절된다. 한국은 집단주의적 특성을 많이 갖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Cha, 1994)와 선후배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들-대학생들의 신입생활영회에서 선배의 술 강요로 인한 후배 치사 사건들, 중고생들의 후배 폭행사건들 등-에 근거하여, 연령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구분되는 수직적 혹은 위계적 대인관계를 추론하여 볼 수 있다.

위계적 대인관계의 기저에는 서열에 따른 대인간 질서를 강조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유교적 전

통이 있다. 윤대림(1964)은 우리 나라를 지배하는 유교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족과 국가 속에 권위를 인정하고 민중은 국왕에게, 어린이는 부모 명령에, 아내는 남편에게, 연소자는 연장자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p.146)".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인간 관계는 상하 지배-피지배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서열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집단을 유지, 존속,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 대인관계 질서 속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위협적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엄격하게 통제되고 처벌된다. 사회적 역할이 명백하게 규정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욕구나 이익보다 사회적 역할에 근거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역할 속에는 대인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포함된다(최상진, 김기범과 Yamaguchi, 1998; 최상진과 한규석, 1998). 최상진, 김기범 및 Yamaguchi(1998)의 일본과 한국간의 비교문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아랫사람에게는 복종을 요구하고 윗사람에게는 정의롭기를 기대하는 행동규범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상에 근거해 볼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위계적 대인관계를 반영하는 표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장유유서는 연장자와 연소자간의 질서로서, 연장자와 연소자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는 '물리적 시간 차이'이다. 즉, 물리적 시간에 근거한 사람들간의 구분이고, 이것의 구체적 형태가 연령이다. 연령에 의해 타인과의 관계가 규정되고, 관계가 규정된 후에는 연장자로서의 역할과 연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연령에 따른 관계의 규정은 '선배/후배'라는 공적인 관계를 통해서이다. 선후배관계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위계적 대인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후배를 통해 반영되는 위계적 대인관계는 일종의 사회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상

화 과정에 따르면, 우선 낮은 사람과의 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을 만나게 되면, 낮은 관계를 친숙한 관계를 바꾸는 과정으로서 기존의 대인 관계를 대입하게 되고(거점화: 장유유서), 이것에 구체적인 명칭을 부여하고 새로운 행동양식들이 추가됨으로서(사물화: 선배/후배) 이것은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며 사람들의 일상에서 위치를 점하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Moscovici, 1984). 이제 선후배 관계는 위계적 대인관계를 표상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선후배관계에서 나타나는 표상을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이라고 칭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된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이란 연령이나 학년과 같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여된 지위차이에 근거한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체계로서, 지위가 다른 상대에 대한 행동, 정서, 사고과정을 조절하는 표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문화의 위계적 대인관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표상의 존재와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상이 사회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 과정을 거쳐 공유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일한 표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특히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사회에서 구성된 가치와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발달과제이다. 다시 말하면,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에는 인지적 능력, 표상과 관련된 경험과 같은 여러 개인적 변인들이 개입될 것이다. 이밖에도, 표상이 내포하고 있는 제한성과 사회적 기대 등이 표상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 상태를 거쳐 통합 상태로 발달하는 사회인지발달의 일반적 경향(Fisher & Lamborn, 1989)은 표상의 발달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초기에는 서열에 따른 대인간(선배/후배)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애매한 상태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열에 따른 구분이 명확해지고, 최종적으로 대인관계를 위계적 차원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틀 속에서 통합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이런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이 아닌 위계

적 서열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중학생, 자아개념이 공고화되기 시작하고 동조성이 증가하는 고등학생, 그리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강한 위계적 질서와 통제가 줄어들고 자율성을 격려하고 허용하는 대학생들간의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을 알아볼 것이다. 이 세 연령집단의 청소년기 대인관계 표상의 초기단계/ 공고화단계/ 완성단계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문화적으로 위계적 대인관계가 주요 대인관계 형태이지만, 그것이 개개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구성되어있는지는 개인의 인지적 수준이나 경험과 같은 개인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유교적 문화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하는 서열적 관계질서의 유지와 존중에 대한 강조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여성에게 요구된 주요 덕목은 남녀유별로서 남성에 대한 순종이었으며, 위계적 대인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위계적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의 의미와 기능적 가치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여성의 관계지향적 특성이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남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위지향적 특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Brody & Hall, 1993). 따라서 대인관계표상에서 성차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것은 대인관계 특성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사회적 기대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집단주의문화에서 나타나는 내집단에 대한 선호(Masumoto, 1996)와 집단구성원간의 조화에 대한 강조(Markus & Kitayama, 1991)로 인해, 위계적 대인관계의 유지와 준수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은 내집단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내집단으로 인식되는 집단일수록 역할구분이 명확하고, 집단원의 지위가 존중될 것이다. 최근의 청소년 범죄와 비행사건들은 비행집단이 위계질서가 강

한 집단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행과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간에는 관계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분노통제와 위계적 대인관계의 표상간의 관계를 추론하여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을 강하게 형성한 청소년일수록, 뒷사람에게는 분노를 억제하지만 앞사람에게는 강하게 분노를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런 행동경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소 약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첫째, 청소년의 위계적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은 어떠한가?이다. 이를 위해 연령, 성, 비행점수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알아보았다. 둘째, 청소년의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은 분노통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분노유발자(선배/후배)가 실제로 분노표현행동에 차이를 보일 것인지를 알아봄으로써, 대인관계에 따라 분노통제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분노표현행동에 대한 표상의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이런 분노행동의 차이에 대한 설명요인으로서 표상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 방법 및 절차

### 예비연구

성남시의 C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고등학생 각 120명씩 240명과 수원시의 K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분노경험에 대한 개방형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실시 기간은 1998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이며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은 중류층과 중-하류층이었고, 평균 연령은 고등학생이 16.8세이고 대학생은 21.5세이었다.

설문지는 개방형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대상, 장

소, 반응, 종료방법, 통제이유로 구성되었다. 이 설문지는 Scherer(1988)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의 정서(Emotion in social interaction questionnaire)' 설문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 본 연구

#### 피험자

경기도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2개 중학교 2학년 5학년과 2개 고등학교 2학년 5학년에서 각 420명과, C대학교와 K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각 420명에게 분노통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남녀의 비율은 50 : 50이고, 평균연령은 중학생은 14.0세, 고등학생은 16.9세, 대학생은 22.0세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문항이 누락되거나 문항분석에 적합치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122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1998년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연구자와 학과 담당 교사가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진행에 앞서서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응답요령을 소개한 후, 연구자와 담당 교사, 그리고 보조 연구자가 동시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30분 후에 회수하였다.

#### 측정도구

##### 분노통제 설문지

분노유발자에 따른 분노표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설문지는 크게 2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개인의 분노 경험을 재인하여 몰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노를 유발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의도성의 판단, 경험강도, 및 표현강도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른

분노표현 행동을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각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분노시나리오의 구성과 특징들을 알아본다. 첫째, 분노유발사건에는 ‘관계에 대한 위협’(Kitayama & Markus, 1995)과 ‘의도성’(Levine, 1995)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사건은 이지연과 김정미(1998)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분노유발사건은 ‘믿었던 사람이 신뢰를 저버린 경우(고등학생 30.0%, 대학생 23%)’였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시나리오에서 분노가 재인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보조 연구자들에게 ‘다음의 가상 상황이 어떤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인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질문을 받은 모든 대학원생 응답자들이 ‘분노’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내집단과 외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서표현행동의 차이(최상진과 이요행, 1995; Matsumoto, 1996)를 통제하기 위하여, 분노 유발자를 내집단(친한 선배/친한 후배)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분노유발자가 선배인 조건과 후배인 조건 모두에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 선배나 후배라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개인적 수준에서 알아보기 위해, 두 조건 모두에 반응하도록 구성되었다(집단 내 설계). 이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나는 친한 후배에게 나에게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후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야기를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가 났다.”

설문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분노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피험자들은 분노유발자의 의도성에 대한 판단(‘후배의 행동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험강도(‘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강하게 화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정도(‘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후배에게 보일 것입니까?’)를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이 질문들은 피험자가 분노경험의

재인과 몰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분노표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영인(1994), 이지연과 김정미(1998), Frydenberg(1997), 및 Hoffner(1993)의 연구에 근거하여 분노표현행동 척도를 구성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2:가끔, 3:보통, 4:자주, 5:항상)로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150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부하량이 4이하인 문항을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10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분노표현행동은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억제적 표현행동, 공격적 표현행동, 그리고 언어적 표현행동이었다.

본 설문지의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각 10명씩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문항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 위계적 대인관계표상 척도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을 측정하기 위한 ‘위계적 대인관계표상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남의 I 고등학교 남학생 100명과 C여자고등학교 여학생 100명 그리고 K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2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후배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개방형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이 대학생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생의 응답과 대학생의 응답이 중복되거나, 혹은 대학생에게서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응답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은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완성된 형태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인 대학생들의 표상을 반응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선배/후배, 부모/형제에 대해 ‘예의를 지켜야하는 경우’와 ‘갈등상황’에 대한 대답들에 근거하여 40개의 문항과 황상민(1994)의 ‘권위적 의사소통 척도’ 10문항을 합하여 Likert식 7점 척도로 총 50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설문지를 C대학과 K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200명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분석과 상관관계를 구하여, 요인 부하량이 .4이하인 문항과 문항과 전체점수의 상관계수가 .7이하인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1이었다.

17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4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은 '의사소통양식', '의례적 행동',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지배성'으로 명칭되었다. 의사소통방식요인에는 '후배의 주장이 옳아도 나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 '후배에게 화를 잘 내게되고 언성이 높아진다' 등의 문항이 속하고, 의례적 행동 요인에는 '후배가 먼저 인사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다', '후배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화가 난다' 등의 문항이 속하며, 의사결정방식요인에는 '의견이 대립되면 우선 선배를 따른다' 등의 문항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지배성 요인에는 '후배는 잘해주면 기어오르고 엄하게 대하면 굽신거린다' 등의 문항이 속한다.

#### 비행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행척도는 양돈규(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본 척도에 대한 전체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773이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698(지위관련비행), .7102(폭행관련비행), .5879(성관련비행), 그리고, .5537(재산관련비행)이었다.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 척도와 비행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선배조건과 후배조건에 따른 정서반응행동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으로서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집단내 설계에 의한 2집단 MANOVA를 실시하였다. 이때 집단내 요인(within-subjects factors)으로는 분노표현행동들(의도판단, 경험강도, 표현의지정도, 그리고 3가지 분노표현행동)이었고, 집단간 요인(between-subjects factors)은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점수에 따라 상위40%에 속하는 집단과 하위 40%에 속하는 집단이었다.

###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이 분노유발자(선배/후배)의 분노표현행동에 대한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의 특성

##### 연령별 특성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의 연령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위계적 대인관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에 따라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점수에서 차이가 있다(  $F=18.537$ ,  $p<.01$ ). 이 결과는 표상의 발달적 경향이 곡선적임을 보여 주었다. 즉, 중학생(56.81)에서 고등학생(60.01)간에 평균점수가 증가되었으나 대학생(53.37)이 되면 오히려 낮아졌다.

표 1 연령에 따른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점수

	N	M	SD	F
중학생	371	56.81	17.45	18.537*
고등학생	396	60.01	15.47	
대학생	416	53.37	13.74	
전체	1183	56.67	15.78	

\*  $p<.01$

**성별 특성**

청소년의 성에 따른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을 통하여, 청소년의 성에 따라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점수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t=2.466, p<.05$ ). 고등학생 ( $t=2.430, p<.05$ )과 대학생 ( $t=3.090, p<.01$ )에서 남녀에 따른 성차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성차를 살펴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2 성별에 따른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점수

	남자	여자	df	t
	M (SD)	M (SD)		
중학생	56.40(16.20)	57.22(18.63)	363.528	-.457
고등학생	61.80(14.10)	58.04(16.67)	367.968	2.410*
대학생	55.18(13.49)	51.03(13.74)	414	3.090**
전체	57.74(14.80)	55.47(16.76)	1181	2.466*

\*  $p<.05$  \*\* $p<.01$

**위계적 대인관계표상과 비행**

비행점수에 따른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행점수가 높은 집단이 비행점수가 낮은 집단보다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t=-5.647, p<.001$ ).

표 3 비행점수에 따른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점수

하위비행		상위비행		df	t
M	SD	M	SD		
54.86	15.82	62.11	16.64	638	-5.647***

\*\*\* $p<.001$

**청소년의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이**

**분노통제에 미치는 영향**

**분노유발자에 따른 분노행동의 차이**

분노유발자(선배/후배)에 따른 분노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짝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성에 따른 차이를 밝히기 위해, 독립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분노유발자에 따른 분노 표현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억제적 표현:  $t=12.916, p<.001$ , 언어적 표현:  $t=-18.040, p<.001$ , 공격적 표현:  $t=-17.208, p<.001$ ). 이 결과는 가설 4를 지지하는 것이다. 표현행동유형과 분노유발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억제적 표현은 후배(6.58)보다 선배(7.73)에게 빈번하게 나타났고, 언어적 표현(선배:8.77, 후배:10.21)과 공격적 표현(선배:5.10, 후배:6.43)은 선배보다 후배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표 4 분노유발자에 따른 분노표현행동

		선배	후배	t
		M (SD)	M (SD)	
억제적 표현	남자	8.01(2.99)	6.86(2.73)	9.927***
	여자	7.42(2.97)	6.27(2.69)	
	t	3.471***	3.806***	
	전체	7.73(3.00)	6.58(2.72)	
언어적 표현	남자	8.98(3.17)	10.22(3.03)	-11.662***
	여자	8.54(3.16)	10.20(2.99)	
	t	2.406*	.113	
	전체	8.77(3.17)	10.21(3.01)	
공격적 표현	남자	5.25(2.34)	6.49(2.96)	-11.333***
	여자	4.93(2.18)	6.37(3.10)	
	t	2.534*	.712	
	전체	5.10(2.27)	6.43(3.03)	

\*\*\* $p<.001$



**위계적 대인관계표상과 분노행동**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이 분노유발자의 분노표현행동에 대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내 설계에 의한 2집단 M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내 요인은 분노행동으로서 의도 판단, 경험 강도, 정서표현의지와 3가지 분노표현행동(언어적 표현, 공격적 표현, 억제적 표현)이었다. 그리고 집단간 요인은 위계적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점수 하위 40%집단과 상위40%집단이었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의도 판단을 제외한 모든 분노행동에서 분노유발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든 분노표현행동에서 유의미하였다. 의도성 판단

( $F=14.755, p<.001$ ), 경험강도 ( $F=6.473, p<.05$ ), 표현의지정도( $F=40.647, p<.001$ ), 언어적 표현행동( $F=12.911, p<.001$ ), 억제적 표현행동( $F=37.113, p<.001$ ), 공격적 표현행동( $F=101.374, p<.001$ )에서 유의미했다.

**논 의**

본 연구는 수직적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청소년의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이 분노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우선 위계적 대인관계를 밝히기 위해, 선후배에 대한 설문을 통해 대인관계

표 5 위계적 대인관계표상과 분노표현행동의 변량분석

	Willks-Lamda	III유형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의도판단(내변인)	1.000	.439	1	.439	.416
표상(간변인)		177.845	1	177.845	44.585***
의도 x 표상	.985	15.580	1	15.580	14.755***
오차		1017.890	964	1.056	
경험강도(내변인)	.933	73.969	1	73.969	69.073***
표상(간변인)		150.749	1	150.749	48.519***
경험강도 x 표상	.933	6.931	1	6.931	6.473*
오차		1032.327	964	1.071	
표현의지정도(내변인)	.930	507.102	1	507.102	298.010***
표상(간변인)		102.557	1	102.557	24.256***
표현의지 x 표상	.985	69.166	1	69.166	40.647***
오차		1640.368	964	1.702	
언어적 행동(내변인)	.773	1072.867	1	1072.867	283.749***
표상(간변인)		.629	1	.629	.041
언어적행동 x 표상	.987	48.818	1	48.818	12.911***
오차		3644.924	964	3.781	
억제적 행동(내변인)	.875	632.378	1	632.378	137.328***
표상(간변인)		13.445	1	13.445	1.131
억제적행동 x 표상	.963	170.899	1	170.899	37.113***
오차		4439.109	964	4.605	
공격적 행동(내변인)	.785	939.121	1	939.121	264.076***
표상(간변인)		1545.739	1	1545.739	162.379***
공격적행동 x 표상	.905	360.513	1	360.513	101.374***
오차		3428.229	964	3.556	

\* $p<.05$ , \*\*\* $p<.001$

표상을 구성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연령, 성, 및 비행점수에 따라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이 분노유발자(선배/후배)에 따른 분노행동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의 특성과 분노통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표상이 유교적 사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네 가지 요인은 요인에 부하된 문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의사소통방식, 의례적 행동,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지배성으로 명명되었다. 이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응용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례적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의례적 행동은 다른 세 가지 요인에 비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에서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문제행동(예를 들면, 후배의 행동이 공손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인한 선후배간의 갈등 등)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사람들은 예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예에는 인(仁)이 깃 들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아랫사람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은 상대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과 정신은 분리될 수 있다. 즉, 초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가 일치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표현되는 행동과 경험되는 정서간에는 차이가 나게 된다. Hochschild(1983)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비행기 승무원은 승객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웃는 얼굴과 정성스런 행동을 보였으나, 비행기 여행이 일반화되면서 비행기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가 낮아지고 승객에 대한 감정도 변하게 된다. 즉 승객을 더 이상 가족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직업적 상대로서 보게 된다. 그러나 직업적 행동으로서 웃는 얼굴 표정과 공손한 행동은 남아있다. 이 연구결과는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는 변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

는 행동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후배간의 관계에서도 윗사람에 대한 정서(존경)는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표면적 행동(의례적 표정)만이 남게 되며, 이 행동이 대인관계(선배/후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적 사고나 정서가 줄어들거나 혹은 사라지게 되면, 행동은 융통성을 잃게되는 듯하다. 예를 들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를 구타하는 등의 사건들은 정서가 배제된 행동의 경직된 기능을 보여준다. 즉 현재 청소년들에서 나타나는 선후배간의 갈등은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겉으로 표현되는 행동간의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의 구성요소를 밝힘으로써 유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한 대인관계를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표상이 개인적 수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의 연령적 변화를 살펴보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점수가 증가하다가 대학생이 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의 발달 경향은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가 개인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수준과 관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Markus와 Kitayama(1991)에 의하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이 형성되는 '상호의존적 자기'를 형성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새롭게 경험하는 위계적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강한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선후배라는 지위에 의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동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인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에 근거하여, 보다 추상적이고 통합적인 대인관계 틀이 생기게 되면서(Fisher & Lamborn, 1989, Wadsworth, 1989), 수직적 차원만이 아닌 수평적 차원을 고려하

게되고, 이로 인해 대학생의 경우 다른 두 연령집단보다 오히려 표상 점수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우리 나라 교육 특성 상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집단의 강제력이 약해지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율성이 허용되는 대학생 문화의 특성이 대인관계에 대한 융통성으로 반영된 듯하다. 이 결과는 사회적 가치나 의미가 개인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정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보여준다.

청소년의 성에 따라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점수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위계적 대인관계 질서의 유지와 존중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강조되었다는 것과 남학생들의 지위지향적 특성(Brody & Hall, 1993)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대인관계에서 위계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남학생에게 보다 기능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후기부터 남성과 여성의 대인관계 특성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은 개인 뿐 아니라 특정 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 듯하다. 비행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점수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행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낮은 자아개념, 낮은 저항능력, 가정환경 등과 같은 비행 청소년 개인의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이런 비행에 대한 연구의 틀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행을 개인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하고 집단원간의 조화와 결속을 강조하는 우리 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비행집단과 성인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의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청소년 범죄 혹은 비행은 집단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마치 성인의 폭력 조직을 연상시키는 행동형태를 보인다. 우선, 비행

집단은 소속과 탈퇴가 폐쇄적인 집단으로서, 구성원의 자율성이 매우 적다. 또한 집단원의 역할과 지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비행집단의 특성이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점수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비행점수가 높다는 것이 비행집단에 소속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점수와 표상점수간의 관계는 추후 연구에서 비행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하는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집단은 또래로 구성된 집단이 아닌 선후배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비행이 또래압력에 의한 동조적 행동이라기보다는 윗사람(선배)에 대한 복종일 가능성이 있다.

#### 위계적 대인관계표상과 분노통제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은 분노유발자의 분노표현행동에 대한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분노표현이 대인관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차이는 대인관계를 규정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개인의 정서통제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서에 포함된 요소들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위계적 대인관계 표상이 분노유발자에 따른 분노행동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문화적 가치가 개인적 수준에서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식을 설명하는데 유용하지만,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 구분된 양육방식이 개인의 양육방식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집단주의 문화에서 윗사람에 대한 분노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할지라도(Matsumoto, 1996), 이것이 개인의 분노표현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의 정서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와 가치를 개인적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대인관계에 대한 지식이 표출규칙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시사한다. 표출규칙(Saarni, 1983, 1997)은 어떤 사회적 기대에 따르기 위해 내적 상태의 표현을 숨기거나 대체하는 능력이다. 문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적 정서에 대해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를 기대하는 정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대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관계지향적인 문화에서는 기쁨과 같은 긍정 정서와 분노, 공포와 같은 부적 정서 모두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지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정서를 표현한다(한규석, 1991; Masumoto, 1996). 본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언어적 표현행동이 주가 되고 공격적 표현행동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는 일반적 경향은 유지되지만, 선후배에 따라 분노 표현행동이 표출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통제이유가 선후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에서도 보여진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대한 지식은 표출규칙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으로 구분되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론적 의의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반영하는 사회-인지적 구성인(construct)인 표상과 정서통제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발달을 설명하는 틀로서 개인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간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둘째, 실제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분노 표출의 적응적 가치는 분노의 대인관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분노통제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정서표현은 개인의 특성(Spielberger, Reheiser, & Sydman, 1995)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의 문제이다. 즉, 어떤 행동의 적응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한다. 분노통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시하는 경우,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와 같은 영역 특수적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최상진과 이요행

(1995)은 한국인의 화 발생에 관여되는 심리적 과정은 서양의 분노에 관여되는 심리적 과정보다 훨씬 복잡하며, 정형화가 덜 되었으며, 역동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서구에서 제안된 분노통제 프로그램은 우리 나라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서구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의 강조로 인해, 자신의 감정과 사고의 주장을 허용하기 때문에, 분노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문제 중심적이며 주장적 대처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의 조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욕구와 이익의 주장은 덜 성숙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심정'에 호소하여 분노를 토로하는 경우에는 관계를 개선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적합한 분노통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 적절한 분노통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표출규칙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실제 정서행동이 아닌, 자기보고에 의한 정서표상을 다루었기 때문에, 실생활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생태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정서반응을 측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대인관계의 수직적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제한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구조에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독립적일 가능성이 있다. 즉 수직적(위계적)이면서 동시에 수평적(평등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의 수직적 대인관계 구조만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위계적 대인관계표상의 점수는 위계적 대인관계의 정도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즉 위계적 대인관계표상 점수가 낮다는 것이 수평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모두 포함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영인(1994).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 논문
- 김경희(1997). 한국아동의 정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0권 1호, 43-56.
- 김경희(1996). 한국 청년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9, 1, 1-14.
- 윤태립(1964). 한국인의 성격.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 이승환(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인문 사회과학총서16,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지연, 김정미(1998). 대인관계 맥락내에서 분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수원여자대학 논문집, 24, 297-314.
- 최상진, 김기범, Yamaguchi, S.(1998). 사회정의와 집단성의 갈등상황에서의 문화적 차이. 98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47-557.
- 최상진, 이요행(1995). 한국인 핏병의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95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최상진, 한규석(1998). 교류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 국제한국학회(편), 한국문화와 한국인(161-193). 서울: 사계절.
- 최수향(1990). "명확성 요구(Clarification request)" 문장에 나타난 언어적 심리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 48-57.
- 한규석(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1), 132-155.
- 황상민, 김현정(1995). 청소년의 일상 문제 행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집단간 차이: 문제 행동 빈도와 중요성 지각을 결정하는 의사소통의 특성과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151-173.
- Averill, J. R.(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1145-1160.
- Brody, L. R., & Hall, J. A.(1993). Gender and emotion. In M. Lewis, & J. M.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pp.447-46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ha, J. H.(1994). Aspec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pp. 157-174).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Dupont, H.(1994). *Emotional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A neo-Piagetian Perspective*. London: Praeger.
- Fisher, K. W., & Lamborn, S. D.(1989). Mechanisms of variation in developmental levels: Cognitive and emotional transitions during adolescence. In A. D. Ribaupierre (Ed.), *Transition mechanisms in child development: The longitudinal perspective* (pp. 33-6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ydenberg, E.(1997). *Adolescent coping: Theoret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Hochschild, A. R.(1983). *The managed heart: The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ffner, C.(1993). Children's strategies for coping with stress: Blunting and monitoring. *Motivation and Emotion*, 17, 2, 91-106.
- Levine, L. J.(1995).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cues of anger and sadness. *Child Development*, 66, 697-709.
- Lewis, M., & Michalson, L.(1983). *Children's Emotions and Moods: Developmental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 Plenum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rkus, H. R., & Kitayama, S.(1995).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 and emotion: Implications for social behavior. In S. Kitayama, & H. R. Markus(Eds.),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pp. 89-13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tsumoto, D.(1996). *Unmasking Japan: Myths and realities about the emotions of the Japanes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scovici, S.(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M.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pp. 3-6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arni, C.(1979).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 424-429.
- Saarni, C.(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Saarni, C.(1993). Socialization of Emotion. In M. Lewis & J. M.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pp. 435-446). New York: Guilford.
- Saarni, C.(1997). Coping with aversive feelings. *Motivation and Emotion*, 21, 1, 45-63.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man, S. J.(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 207-232.
- Triandis, H. C.(1994).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pp.41-65).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Wadsworth, B. J.(1989). *Piaget's theory of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New York: Longman.
- Zeman, J., & Garber, J.(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 The Effects of Representation of Hierarchical-Interpersonal Relation on Anger Control in Adolescents.

Ji Yeon Lee    Ok Ryun Sung

Chungang University

A representation is the cognitive system which enable us to understand and to explain persons, events, and things. The representation, constructed by the consensus among social members, is assumed that it affects on person's response to stimuli encountered.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representation of hierarchical interpersonal relation on anger control, when anger is caused in interpersonal context. A total of 1228 adolescents, attending to middle and high school and university, evaluated a representation scale, a delinquent scale, and the questionnaire which measures their anger expressions and control degree depending on the type of persons(senior and junior) who cause their anger. The research questions were tested by using t-test, ANOVA, and M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followed: 1) There was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age groups. The developmental direction was curvilinear. Between middle schooler and high schooler, the representation score have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in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representation score of male group and high delinquent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ne of female group and low delinquent group. 2) The representation of hierarchical interpersonal relation have influenced on the differences of anger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anger-caused person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cultural context must be considered, if you want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control of emotion.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for developing the program of anger control.